

●特別招待席

美國의 韓國學 現況

—韓國學 講演 要旨—

◆編輯者註：本 講演要旨는 지난 5月 14日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 主催「韓國學 講演會」에서 主題를 發表한 梁 基佰 박사(美國國會圖書館)의 講演內容의 要約이다.

最近 國內에서는 國學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어 가고 있다. 각종 연구발표와 學術誌를 통하여, 그리고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하여 國學研究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國學이라하면 한국의 政治·經濟·歷史·宗教 등 文化一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國學은 국내에서만 제한되어 연구될 때는 그 價値가 희박하게 된다. 韓國學의 世界進出 나아가서는 東洋學의 세계진출을 考慮할 때 先進外國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美國의 政治·經濟 및 學術分野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이 극소수이므로 韓國文化를 미국에 理解시키는데는 人力부족을 느낀다.

한국은 6.25를 계기로 세계에 알려졌으며 그것도 막연히 「고아의 나라」, 「가난한 나라」로만 알려졌지 역사가 3천년 이상의 文化國이란 것은 전연 알려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한국이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주로 한국을 다녀간 宣教師들의 著術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한국학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日政에는 「日本을 알면 韓國을 알 수 있다」라는 막연한 觀念으로 아무도 韓國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차대전 이후 미국에 留學한 한국학생들과 學者들에 의해 한국학연구가 비교적 활발해졌다.

미국에서 발달된 한국에 관한 英文책자는 中國·日本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1백 97권밖에 되지 않는다.

年代別로 보면 1910년까지는 13권, 11~45년까지는 23권, 46~55년까지는 45권, 56~65년까지가 44권, 66~75년 3월현재까지가 72권이다.

年次의으로 한국에 관한 서적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 한국학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에 관한 博士學位論文을 보면 1900년대초부터 69년까지 불과 35편이었던 것이 70~75년 3월 사이에 90여편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韓國學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인들도 한국을 연구함으로써 中國·日

本을 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東洋을 연구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적과 논문을 分野別로 따져볼 때 藝術·文化·言語·哲學·宗教分野가 政治·經濟에 비해 극소수이다. 현재 美國의 아시아學會 會員은 5천 6백명인데 한국학에 대해 취미를 갖거나 연구를 희망하는 회원은 불과 2백명뿐이다. 日本研究회망자가 1천 5백명인데 비하면 美國에서의 한국이 再認識되어야 할 것 같다.

韓國學 연구단체는 17개가 있으며 주로 60년대에 발족하여 지금은 성숙단계에 있다. 「韓國研究所」를 설치한 대학은 하와이大와 웨스턴미시건大 두 곳뿐이다.

한국학연구 프로그램은 60년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으며 지금은 워싱턴大, 하바드大, 하와이大, 웨스턴미시건大등 4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학의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이다.

지금은 아시아學會內에 한국학연구페널이 5개, 日本學 연구페널이 10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학회 자체가 한국학 연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우선 한국문화의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美國에서 연구된 것은 「韓國學」이 아니라 「韓國研究」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高麗磁器·靑磁 등은 세계역사유물에 빛나는 것이나 아직 昇華된 문화가 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새로운 典籍文化의 정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한국민의 주체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진정한 문화의 발전은 기존문화의 부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문화를 의심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文化가 있다」는 것과 「어떤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전연 다른 것이다.

이제 한국은 소극적이고 愛國主義의인 입장에서의 문화연구단체를 탈피하고 한결을 나아가 비판하는 자세인 民族主義의 입장에서 한국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